



경상남도 교육청 최병태 학교보건과장

1968년 보건직으로 공무원에 입문한 최병태 학교보건과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렴한 관리로서의 평가를 단 한번도 그르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평소 학생 보건증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79년 경상남도 교육청에 부임하면서 자라나는 도내 학생의 건강 정착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특히 올해는 도내 모든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X-선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학생 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인 : 남 서 중(건협 경남지부 사무국장)